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9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9 주일칼럼

Bummer Lamb

이승우 목사 (워싱톤연합감리교회)

혹시 Bummer Lamb(의역: 실패한 양)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어미 양이 새끼를 낳은 후에 자기가 낳은 새끼를 중에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미 양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잘 알려진 바는 없고 아무튼 어미 양은 그 새끼 양이 젖을 먹고 싶어서 자기에게로 오면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지 못하게 한 새끼는 그 후 절대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미 양에게 버림받은 새끼 양은 마치 목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목을 아래로 축 늘어트리고는 기가 죽은 모습으로 지내는데 바로 그렇게 어미 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새끼 양을 "Bummer Lamb"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Bummer Lamb는 어미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Bummer Lamb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어미 곁에 가지 못한 채 목을 늘어트리고 있는 불쌍한 Bummer Lamb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손으로 떠서 먹여주고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고 담요로 덮어 자기 가슴에 안아 주므로 그 양이 자기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봐줘서 양이 잘 자라면 목자는 그 양을 다른 양들이 있는 양우리로 돌려보내서 다른 양들과 같이 지내게 하는데 그러다가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양이 바로 그 Bummer Lamb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돌봐주던 목자의 음성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랍니다. 목자가 그 양을 다른 양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은 자기를 돌봐준 목자의 음성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Bummer Lamb과 같지 않나 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20

December 월 Mon

기도에 관한 교훈들

Precepts on Prayer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8:1-8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우선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 – 끈질긴 과부의 비유(1-8절)와 올바른 기도의 비유(9-14절)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후,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15-17절). 이어서 젊은 부자 관원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의 반응(18-30절)과 아울러 장차 인자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다(31-34절). 그런 후, 걸인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셨다(35-43절).

누가복음 18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2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7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9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Reading insight

First, Jesus taught about prayer through two parables –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18:1–8) and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18:9–14) – and then blessed the children (18:15–17). There was the question about eternal life from the rich young ruler and his response to Jesus (18:18–30). Jesus foretold of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that the Son of Man Jesus would endure in the future (18:31–34). Then he healed a blind man who was a beggar (18:35–43).

Luke 18

1 And he told them a parable to the effect that they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lose heart.

2 He said, "In a certain city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respected man.

3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who kept coming to him and saying, 'Give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4 For a while he refused, but afterward he said to himself, 'Though I neither fear God nor respect man,

5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ive her justice, so that she will not beat me down by her continual coming.'"

6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righteous judge says.

7 And will not God give justice to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delay long over them?

8 I tell you, he will give justice to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9 He also told this parable to som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treated others with contempt:

10 "Two men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11 The Pharisee, standing by himself, prayedthus: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Bible Clip

눅 LUK 18:11

남의 것을 빼앗는 자 (extortioners)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남의 재물을 억지로 갈취하는 자들을 말한다. 여기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영어성경 NIV-robbers로 표기되어 있다.

Memo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
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5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
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16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
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8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
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
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20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
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21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
습니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3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
기 때문이었다.
24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
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
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6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
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
님은 하실 수 있다."

Bible Clip

눅 LUK 18:18
영생 (eternal life, 永生)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눅 LUK 18:26
구원 (saved)
위기나 위험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행 16:31).

12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get.'

13 But the tax collector, standing far off, would not even lift up his eyes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14 I tell you, this m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the 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15 Now they were bringing even infants to him that he might touch them. And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rebuked them.

16 But Jesus called them to him, saying, "Let th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17 Truly,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shall not enter it."

18 And a ruler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9 And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20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21 And he said, "All these I have kept from my youth."

22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him, "One thing you still lack. Sell all that you have and distribut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23 But when he heard these things, he became very sad, for he was extremely rich.

24 Jesus, seeing that he had become sad, said, "How difficult it is for those who have wealt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For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6 Those who heard it said, "Then who can be saved?"

27 But he said, "What is impossible with men is possible with God."

Memo

Memo

28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
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
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
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
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
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33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
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34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
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35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
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37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
었다.

38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
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
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8 And Peter said, "See, we have left our homes and followed you."

29 And he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who has left house or wife or brothers or parents or children,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30 who will not receive many times more in this tim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31 And taking the twelve, he said to them, "See,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everything that is written about the Son of Man by the prophets will be accomplished.

32 For he will be delivered over to the Gentiles and will be mocked and shamefully treated and spit upon.

33 And after flogging him,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34 But they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This say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grasp what was said.

35 As he drew near to Jericho, a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36 And hearing a crowd going by, he inquired what this meant.

37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38 And he cried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39 And those who were in front rebuked him, telling him to be silent. But he cried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0 And Jesus stopped and commanded him to be brought to him. And when he came near, he asked him,

41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said, "Lord, let me recover my sight."

42 And Jesus said to him, "Recover your sight;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43 And immediately he recovered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the people, when they saw it, gave praise to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id Jesus tell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18:1)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After telling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what did Jesus say with groaning? (18: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한 판 승부
About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집요하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한 과부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5절).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희랍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권투 시합에서 쓰는 말로써, '자꾸만 얼굴을 때려 눈이 멍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치열하게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양 선수 모두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불의하기로 악명 높은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해서 졸라 대는 것이 성가시고 귀찮아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에게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펀치를 계속 맞아 나가떨어지고 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권투시합으로 치면 기권패를 한 셈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의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An unjust judge tells himself about a widow who persistently visits him and complains: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come and attack me!'" (18:5). The word "bothering"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Hupopiazo." This word was originally used in a boxing match and means "to bruise the eyes by hitting the face over and over again." In a fierce boxing match, both fighters are bound to get bruises around their eyes. Therefore, the judge, who was notorious for injustice, became so annoyed and bothered by the widow's constant harassing that he raised the white flag in surrender to the helpless widow.
It is as if the judge is knocked down by the widow's punch. In boxing terms, he would have withdrawn and lost. Sometimes you may feel helpless in the face of difficult and challenging tasks. No matter where you look in the world, you have nowhere to turn. You are put in a tight spot. What you can and must do in such a situation is pray.
Just like Jacob who wrestled with God at the Jabbok River ferry, you must fight a battle of prayer with God. If you pray persistently without giving up, your good Heavenly Father will surely answer you.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1

December 화 Tue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Jesus enters Jerusalem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9:41-48

새586장(통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경험하였고(1-10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해가자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열 므나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셨다(11-27절).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28-40절), 장차 멸망할 성읍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41-46절). 그 후,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47-48절).

누가복음 19장

1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2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4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6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Reading insight

The tax collector Zacchaeus experienced salvation through meeting Jesus (19:1–10). When Jesus and his companions were near Jerusalem and people expected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soon appear, Jesus taught the parable of ten minas to teach them how to prepare for the kingdom of God (19:11–27). Finally, Jesus entered Jerusalem on a colt (19:28–40), and he wept over the city that will be destroyed. He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the merchants (19:41–46). After that, he taught daily in the temple (19:47–48).

Luke 19

1 He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2 An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rich.

3 And he was seeking to see who Jesus was, but on account
of the crowd he could not, because he was small of stature.

4 So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at way.

5 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6 So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7 And when they saw it, they all grumbled, "He has gone in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is a sinner."

8 And Zacchaeus stoo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the half of my goods I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
frauded anyone of anything, I restore it fourfold."

9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inc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11 As they heard these things, he proceeded to tell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 they sup-
pos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to appear immediately.

12 He said therefore, "A nobleman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hen return.

Bible Clip

눅 LUK 19:5

삭개오 (Zacchaeus)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키가 작았다. 주님을 만나 변화 받은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Memo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
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5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
하여라.'
18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
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20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
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
관해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
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
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
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
어라.'
25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
고 있습니다' 하였다.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
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13 Calling ten of his servants, he gave them ten minas, and
said to them, 'Engage in business until I come.'

14 But his citizen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saying, 'We do not want this man to reign over us.'

15 When he returned, having received the kingdom, he or-
dered these servant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to be
called to him, that he might know what they had gained by
doing business.

16 The first came before him, saying, 'Lord, your mina has
made ten minas more.'

17 And he said to him, 'Well done, good servant!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you shall have author-
ity over ten cities.'

18 And the second came, saying, 'Lord, your mina has made
five minas.'

19 And he said to him, 'And you are to be over five cities.'

20 Then another came, saying, 'Lord, here is your mina,
which I kept laid away in a handkerchief;

21 for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severe man. You
take what you did not deposit,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22 He said to him, 'I will condemn you with your own
words, you wicked servant! You knew that I was a severe
man, taking what I did not deposit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23 Why then did you not put my money in the bank, and at
my coming I might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24 And he said to those who stood by, 'Take the mina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he ten minas.'

25 And they said to him, 'Lord, he has ten minas!'

26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27 But as for the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reign over them, bring them here and slaughter them before
me.'"

28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ent on ahead, go-
ing up to Jerusalem.

Memo

Memo

29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30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35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38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39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5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Bible Clip

눅 LUK 19:43

토성 (embankment, 土城)

적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 높이만큼 높게 쌓은 흙무더기 언덕이다.

29 When he drew near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that is called Olivet, he sent two of the disciples,

30 saying, "Go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where on entering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no one has ever yet sat. Untie it and bring it here.

31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you shall say this: 'The Lord has need of it.'"

32 So those who were sent went away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33 And as they were untying the colt, its owners said to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34 And they said, "The Lord has need of it."

35 And they brought it to Jesus, and throwing their cloaks on the colt, they set Jesus on it.

36 And as he rode along, they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37 As he was drawing near--already on the way down the Mount of Olives--the whole multitude of his disciples began to rejoice and praise God with a loud voice for all the mighty works that they had seen,

38 saying,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39 And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40 He answered, "I tell you, if these were silent, the very stones would cry out."

41 And when he drew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42 saying, "Would that you, even you, had known on this day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But now they are hidden from your eyes.

43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set up a barricade around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44 and tear you down to the ground, you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upon another in you,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45 And he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sold,

Memo

Memo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48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46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47 And he was teaching daily in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principal men of the people were
seeking to destroy him,

48 but they did not find anything they could do, for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his wor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44절)
Why did Jesus weep when he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19:43-44)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6절)
What did Jesus say when he entered the temple to drive out the merchants? (19:4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흐느낌의 눈물
Weeping tears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41절). 예수님은 머지않아 로마 군대가 침입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은 물론이요, 그 성읍 안에 거하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희랍어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읍(泣)'으로써 소리 없이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 때 쓰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으로 근심과 분노로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임함으로 멸망 당할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의 눈물이며, 동시에 그러한 심판을 자초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차별과 온갖 부정의를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지에 대해 근심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분노하며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When Jesus approached the city of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19:41). Jesus wept as he predicted that the Roman army would soon invade and destroy the city and its splendid temple, as well as the slaughtering of thousands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The Greek word used here is "klaio" that is in Chinese character "Eup(泣)" which means that a person weeps silently in a very low voice. Jesus wept with sorrow and anger with a burning heart.
Those tears are tears of sorrow for fellow Jews who will be destroyed as God's judgment descends like a raging fire. They were also tears of anger against the hypocrisy, disobedience, and pride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t the time who caused such judgment. We need these tears today too. We should weep at the racism and all kinds of injustice that are rampant in the land we live in. We must shed tears as we see the divided reality of our beloved Korea peninsula. We should weep with sorrow over God's return anticipating how harsh God's judgment will be. We should weep and cry in godly anger over the sins of all nations that will bring God's judgment upon oursel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2

December 수 Wed

수태고지 (受胎告知)

Annunciatio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26-38

새104장(통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서 기자는 서문(1-4절)에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 후,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5-25절)와 더불어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로 알려진 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사건(26-38절)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1-38

1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
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3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
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5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
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6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
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8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9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
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0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
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12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Reading insight

In the preface (1:1–4),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reveals that the purpose of his writing is to make Theophilus, the most honorable,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he has been taught." Then there is the story of John the Baptist's parents, Zacharias and Elizabeth (1:5–25). Known as the "Annunciation", it records the incident (1:26–38) where the angel Gabriel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Luke 1:1–38

1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 narrativ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2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ave delivered them to us,

3 it seemed good to me also, having followed all things
closely for some time past,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4 that you may have certainty concerning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5 In the days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of the division of Abijah. And he had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Aaron, and her name was Eliza-
beth.

6 And they were both righteous before God, walking blame-
lessly in all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7 But they had no child,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both were advanced in years.

8 Now while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when his
division was on duty,

9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he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10 And the whole multitude of the people were praying out-
side at the hour of incense.

11 And there appeared to him an angel of the Lord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12 And Zechariah was troubled when he saw him, and fear
fell upon him.

Bible Clip

눅 LUK 1:11

분향하는 제단 (altar of incense)

성소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제사장은 제단 향에 불을 피워 기도했다.

Memo

13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16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19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20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2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23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24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25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26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13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for your prayer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14 And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
joice at his birth,

15 for he will be great before the Lord. And he must not
drink wine or strong drink,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his mother's womb.

16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children of Israel to the Lord
their God,

17 and he will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dis-
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just, to make ready for the
Lord a people prepared."

18 And Zechariah said to the angel, "How shall I know this?
For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advanced in years."

19 And the angel answered him, "I am Gabriel.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was sent to speak to you and to bring
you this good news.

20 And behold, you will be silent and un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at these things take place, because you did not be-
lieve my words, which will be fulfilled in their time."

21 And the people were waiting for Zechariah, and they
were wondering at his delay in the temple.

22 And when he came out, he was unable to speak to them,
and they realized that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And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and remained mute.

23 And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ended, he went to his
home.

24 After these days his wife Elizabeth conceived, and for
five months she kept herself hidden, saying,

25 "Thus the Lord has done for me in the days when he
looked on me, to take away my reproach among people."

26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of Galilee named Nazareth,

27 to a virgin betroth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28 And he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O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Memo

Memo

29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31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29 But she was greatly troubled at the saying, and tried to discern what sort of greeting this might be.

30 An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31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33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34 And Mary said to the angel,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35 And the angel answere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the Son of God.

36 And behold, your relative Elizabeth in her old age has also conceived a son, and this is the sixth month with her who was called barren.

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38 And Mary said,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6절)
What was the name of the angel who appeared to Mary and heralded the conception of Jesus Christ? (1:26)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38절)
What did Mary say after hearing the angel's words? (1: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성탄절의 기적
Christmas miracle

중세의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의 기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기적이며, 셋째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취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사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시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38절).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St. Bernard of Clarivaux (1090-1153) stated that three miracles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birth of Jesus. The first is the miracle that Jesus, the Son of God,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use of a virgin body, and the second is the miracle that God came into the world as a man in the flesh. It was said that the third miracle was that Mary by her faith accepted the wonderful miracle that will happen to her. But which of these three miracles is the most incredible? In fact, conceiving a baby from a virgin's body can be trivial for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something out of nothing. And the fact that God became a man could be a truly amazing miracle.
However, believing that Mary herself was chosen to be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a miracle among miracles. It is the greatest miracle to believe and accept something that is absolutely unbelievable. Hearing her angel's words, Maria said, "I am the Lord's servant. May everything you have said about me come true" (1:38). Mary believed and accepted the incredible fact that Jesus, the Savior of all mankind, will be conceived in her own body by the Holy Spirit. As such, the miracle of Christmas is the miracle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3

December 목 Thu

마리아 찬가

Mary's Song of Praise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46-56

새112장(통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야임을 알아보았다. 그 후,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Magnificat, 46-56절).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57-66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Benedictus, 67-80절).

누가복음 1:39-80

39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42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
입니까?

44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
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
니다."

46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48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9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은 거룩하고,

50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
을 것입니다.

51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
으셨으니,

52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
습니다.

Reading insight

When Mary visited Elizabeth, Elizabeth recognized that the child in Mary's womb was the Messiah. After that, Mary praised God with joy (Magnificat, 1:46–56). Elizabeth gave birth to her own child and named him John (1:57–66). John's father, Zacharias, also praised God with joy (Benedictus, 1:67–80).

Luke 1:39–80

39 In those days Mary arose and went with haste into the hill country, to a town in Judah,

40 and she entered the house of Zechariah and greeted Elizabeth.

41 And when Elizabeth heard the greeting of Mary,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42 and she exclaimed with a loud cry,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43 And why is this grant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44 For behold, when the sound of your greeting came to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45 And blessed is she who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fulfillment of what was spoken to her from the Lord."

46 And Mary said, "My soul magnifies the Lord,

47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48 for he has looked on the humble estate of his servant. For behold,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49 for he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50 And his mercy is for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1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52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Bible Clip

눅 LUK 1:43

내 주님의 어머니
(mother of my Lord)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한다.

Memo

53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
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54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
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
아갔다.

57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
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
랴라 하고자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61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62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 보았다.

63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
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64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
님을 찬양하였다.

65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
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
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
기 때문이다.

67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
하였다.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
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69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Bible Clip

눅 LUK 1:68

속량 (redeemed, 贖良)

'석방하다'라는 의미로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석방해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3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54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in remembrance of his
mercy,

55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to his off-
spring forever."

56 And Mary remained with her about three months and re-
turned to her home.

57 Now the time came for Elizabeth to give birth, and she
bore a son.

58 And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that the Lord had
shown great mercy to her, and they rejoiced with her.

59 And on the eighth day they came to circumcise the child.
And they would have called him Zechariah after his father,

60 but his mother answered, "No; he shall be called John."

61 And they said to her, "None of your relatives is called by
this name."

62 And they made signs to his father, inquiring what he
wanted him to be called.

63 And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and wrote, "His name is
John." And they all wondered.

64 And immediately his mouth was opened and his tongue
loosed, and he spoke, blessing God.

65 And fear came on all their neighbors. And all these things
were talked about through all the hill country of Judea,

66 and all who heard them laid them up in their hearts, say-
ing, "What then will this child be?" For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him.

67 And his father Zechar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phesied, saying,

68 "Blessed be the Lord God of Israel, for he has visited and
redeemed his people

69 and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70 as he spoke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from of old,

Memo

Memo

71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72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73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에게 하신 맹세이니,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
을 섬기게 하시고,

75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76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77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
쳐 줄 것이다.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79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80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71 that we should be saved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72 to show the mercy promised to our fathers and to remember his holy covenant,

73 the oath that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to grant us

74 that we, being delivered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might serve him without fear,

75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76 And you, child, will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before the Lord to prepare his ways,

77 to give knowledge of salvation to his people in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78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whereby the sunrise shall visit usfrom on high

79 to give light to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8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was in the wilderness until the day of his public appearance to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7-48절)
Why does Mary rejoice in praising God? (1:47-48)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2절)
What has God done to the rulers and the humble according to Mary's confession? (1:5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Thank you, Your Highness!"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46-48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의 어느 촌구석에서, 그것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비천하게 하녀 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다윗가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부른 찬송의 요점은 그가 받은 '영예'(honor)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심'에 있습니다.

만일 왕자가 거지의 손을 잡았다면, 격찬 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왕자로서, 그의 호의와 덕망이 칭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지의 입장에서는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 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에서 동냥하는 걸인을 만났습니다. 적선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 보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 한 닢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톨스토이는 걸인에게 "내 형제여, 지금 내게 돈이 하나도 없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걸인은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여가며 환히 웃는 낯으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황송하게도 '형제'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도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Mary said, "Oh, how my soul praises the Lord. How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took notice of his lowly servant girl" (1:46-48). She lived in a remote village in Nazareth, Galilee, where she had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and lived as a humble maid. But in His presence, she praised the grace of her God, who made her the mother of Jesus Christ, the Messiah of the House of David. Therefore, the point of Mary's song of praise is not about the "honor" she received, but about "God's favor."

If the prince took the hand of the beggar, it is the prince who deserves praise, and his favor and virtue should be praised. The beggar may say, "Thank you, Your Highness!" What can he say other than that?

Russian writer Tolstoy met a beggar on the street one day. He looked through his pocket to make his donation, but no coins were found. Feeling sorry, Tolstoy politely said to the beggar, "My brother, I have no money right now. I'm really sorry." Then the beggar bowed his head several times and said with a bright smile, "No. Sir, you gave me more than I asked for. You called me 'brother.'" It is the grace of God that has called us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ie because of our sins. We just say, "Thank you, Your Highness!" And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bow down before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4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The Birth
of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8-14

새125장(통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짤막한 기사(1-7절)와 더불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일군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펼쳐졌음을 알리고 있다(8-14절).

누가복음 2:1-21

1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3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4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6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7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8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Reading insight

Today's text includes a brief account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2:1–7). On the night that Jesus was born, an angel appeared to a group of shepherds and announced the news of the birth of Jesus. At that time, a scene of a multitude of heavenly hosts praising God with the angel suddenly unfolded (2:8–14).

Luke 2:1–21

1 In those days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2 This was the first registration when Quirinius was gover-
nor of Syria.

3 And all went to be registered, each to his own town.

4 And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town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
vid,

5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ho was with
child.

6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them in the inn.

8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fear.

10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11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12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Memo

13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
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14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
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15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
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16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17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
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18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
을 이상히 여겼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
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
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다.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15 When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over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16 And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a manger.

17 And when they saw it, they made known the saying that
had been told them concerning this child.

18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what the shepherds told
them.

19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20 And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had been told them.

21 And at the end of eight days, when he was circumcised, he
was called Jesus, the name given by the angel before he was
conceived in the womb.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천사가 한 밤 중,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12절)
When the angel appeared to the shepherds guarding the flock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at did the angel say to them who were overcome with great fear? (2:10-12)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14절)
What did the thousands of heavenly hosts say while praising God with the angel? (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매일 기쁨을 선사하는 방문객
A visitor who brings joy every day

미국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낮 12시만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2-3분 만에 나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같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까?" "그야 물론 기도하고 나오지요." "기도라니 요? 그 짧은 시간에 대체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길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Jim 말입니다'."
약 한 달 후, 그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후, 병실에서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병실의 모든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응, 내가 이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그것은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이야. 그분이 내게 늘 기쁨을 주고 가거든." 간호사는 평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할아버지에게 방문객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방문객이라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방문객이 언제 찾아오나요?" "응, 날마다 나를 찾아오지. 낮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내 침대 곁을 찾아오거든.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내 귀에 속삭여. '여보게, Jim! 잘 있었나? 나 예수야!'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내게 기쁨을 한 아름 안겨주고 가시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를 찾아와 큰 기쁨을 안겨주고 가십니다.

Grandfather Jim living in the United States used to enter his church at noon every day and leave after 2-3 minutes. One day, a church manager called out to him as he left the church, "Grandpa, why do you come to church every day?" Jim responded, "Yes, of course, I come here to pray." "Are you praying? What are you praying for in that short time?" "I do not know how to pray long. I just pray like this. 'Jesus, Jim is here.'"
About a month later, the grandfather was hospitalized due to old age. But after he arrived, his smile never left him. One day, a nurse asked Jim. "Grandfather! You make all the patients in the hospital smile, is that true?" "Yeah, I'm giving these patients joy. It's all because of the visitor who comes to me. He always brings me joy." The nurse was surprised to hear that the grandfather had a visitor, and asked again, "A visitor? I've never seen anyone with you, so when does that visitor come?" "Yeah, every day he visits me. He comes to my bedside exactly at noon. He comes to me and whispers in my ear like this, 'Hey, Jim! How have you been? I am Jesus!' And then he gives me a lot of joy and goes away." That's right. Jesus, who was born on this earth 2000 years ago, still comes to us every day, giving us great jo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5

December 토 Sat

시므온의 찬송

Simeon's song of Praise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25-35

새122장(통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팔 일이 되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였다(22-24절). 그러자 선지자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Nunc Dimittis, 25-35절),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36-38절). 아울러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성장과(39-40절), 예수님의 유년기 (12살)에 있었던 사건(41-52절)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22-52

22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23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
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24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25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
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7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
고 들어왔다.

28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
하여 말하였다.

29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
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30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32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Reading insight

Eight days after Jesus was born, he was circumcised. On that day, Joseph and Mary went up to the temple in Jerusalem to offer the baby Jesus to God (2:22–24).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prophet Simeon embraced Jesus and praised God (Nunc Dimittis, 2:25–35), and then the prophetess Anna prophesied about Jesus (2:36–38). In addition, the writer of Luke records the story of Jesus' growth (2:39–40) and the events of Jesus' childhood (12 years old) (2:41–52).

Luke 2:22–52

22 And when the time came for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they brought him up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23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male who
first opens the womb shall be called holy to the Lord")

24 and to offer a sacrifice according to what i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turtledoves, or two young pi-
geons."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26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27 And he came in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Law,

28 he took him up in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29 "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31 that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32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33 And his father and his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Bible Clip

눅 LUK 2:22

정결하게 되는 날
(the days of her purification)

신생아를 낳은 산모를 정결케 하는 의식의 날(레 12:1–8) (남자아이의 경우는 부정의 날 7일간과 결례의 날 33일간으로 총 40일이며, 여자아이는 2배의 기간).

Memo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
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5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6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
를 남편과 함께 살고,

37 과부가 되어서,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38 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
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39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
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40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
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41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42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43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
르고,

44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45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48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
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
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Bible Clip

눅 LUK 2:42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길은 강도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이 지나도록 예수께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다른 무리와 함께 이동한다고 여겼을 수 있다.

34 And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Behold, this child is appointed for the fall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for a sign that is opposed

35 (and a sword will pierce through your own soul also), so that thoughts from many hearts may be revealed."

36 And there was a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advanced in years, having lived with her husband seven years from when she was a virgin,

37 and then as a widow until she was eighty-four. She did not depart from the temple, worshiping with fasting and prayer night and day.

38 And coming up at that very hour she began to give thanks to God and to speak of him to all who were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Jerusalem.

39 And when they had performed everything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they returned into Galilee, to their own town of Nazareth.

4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wisdom. And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41 Now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every year at the Feast of the Passover.

42 And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they went up according to custom.

43 And when the feast was ended, as they were returning,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His parents did not know it,

44 but supposing him to be in the group they went a day's journey, but then they began to search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45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returned to Jerusalem, searching for him.

46 After three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47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48 And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An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so? Behold, your father and I have been searching for you in great distress."

Memo

Memo

49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50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51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49 And he said to them, "Why were you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50 And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aying that he spoke to them.

51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submissive to them. And his mother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52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What kind of person is Simeon according to the Gospel of Luke? (2:25)

시므온이 특별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은 무엇입니까? (34-35절)
What did Simeon specifically prophesy about Jesus to Mary? (2:34-3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돌직구 예언
The straight fastball prophecy

선지자 시므온의 찬송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린 말씀이 평소에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아니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길흉을 말하는, 즉 주로 점쟁이들이 말하는 '운세 판단'(fortunetelling)이 아닙니다. 예언은 상대방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던지는 돌직구의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선민주의'(elitism)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더구나 시므온은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라고 거침없이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참 예언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 돌직구를 날리듯 함으로써, 때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 그 뜻에 꼼짝없이 순복하게 만듭니다.

The song of the prophet Simeon contains prophecies about Jesus Christ. In verse 33, Joseph and Mary were amazed when they heard the words of the prophecy. Why were they surprised? It must be because the words they heard were about things they had never imagined or could never expect to happen. It is here that the true value of prophecy is revealed. Prophecy is not just fortunetelling, which fortune tellers say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Prophecy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straight fastball, which throws the words as they are, regardless of the mood of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Simeon's prophecy, Jesus is not only the glory of the nation of Israel, but the light that illuminates all Gentiles. These are words that break the stereotypes of Jewish belief that was immersed in "elitism" at the time. Moreover, Simeon prophesied without hesitation especially to Mary, that Jesus was chosen for Israelites to be slandered and defeated and that "a sword will pierce your heart." Therefore, a true prophecy throws the straight fastball to a certain individual or country, sometimes causing pain and suffering like being stabbed in the heart. By doing so, they deeply understand the will of God which converts them to obediently submit to 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김기석 목사 (청파감리교회, Korea)

동지가 지났으니 이제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 어둠의 터널에 갇힌 듯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저 먼 곳에서 얼핏 떠오르는 오련한 빛을 보고 안도한다.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을 때마다 한 해를 엄범부렁하게 살았다는 자책과 후회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들곤 한다. 성탄절이 연말 즈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성탄절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중심에서 비껴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유력한 이들로부터 비존재 취급을 받던 이들을 감싸 안는 망토처럼 하늘이 땅에 내려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된다. 그분에게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것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숨을 품고 있는 신비이다. 예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하늘이다.

성탄절을 지나며 랍비 조나선 색스가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 네미로프(Nemirov)의 랍비가 사라지곤 했다. 읍내에 있는 회당과 학교에도 없었고, 문이 늘 열려 있는 그의 집에도 없었다. 어느 날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다. 랍비가 부재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늘이 아니면 어디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마

을 사람들은 평화와 음식과 건강이 필요했고, 랍비는 하늘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깊은 신뢰에 감명을 받은 리투아니아인은 그 사라짐의 비밀을 밝혀보기로 작정하고는 목요일 밤에 랍비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랍비가 조용히 탄식하며 우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랍비는 벽장에서 낡은 옷 꾸러미를 꺼내 몸에 걸쳤다. 거룩한 사람의 옷이 아니라 농부의 옷이었다. 랍비는 도구함에서 도끼를 꺼내들더니 밖으로 나갔다. 리투아니아인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랍비는 마을을 지나 숲에 들어가더니 굵은 나무 한 그루를 찍어 넘어뜨린 후 그것을 잘게 잘랐다.

그는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가 어둑한 뒷길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다. 가난하고 병든 늙은 여인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저는 바실리라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좀 팔고 싶어서요. 헐값에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나는 아주머니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분께서 제가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병이 들어 불을 피울 기운조차 없답니다." "제가 피워 드리지요." 랍비는 아침 기도문을 읊조리며 불을 피워드린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학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방문객들에게 랍비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면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늘은 저 높은 곳, 인간의 손길이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분열된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어떻게든 곤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려는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이다. 진심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면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전면적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부둥켜안을 수는 없다 해도,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장소이니 말이다.

27

December 월 Mon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Controversy between Jesus and the religious leader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0:27-40

새170장(통168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종종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다. 누가복음 20장은 다음 여섯 개의 질문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1)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1-2절); (2)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3-8절); (3)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9-19절); (4)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20-26절); (5)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27-40절); (6)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41-47절).

누가복음 20장

1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2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5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7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9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10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Reading insight

Jesus often argued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Pharisees, priests, elders, and Sadducees). Luke 20 focuses on the following six questions: (1)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0:1–2); (2) "Is John's baptism from heaven or from man?" (20:3–8); (3) "What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 evil farmers?" (20:9–19); (4) "Is it lawful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20:20–26); (5) "Among all the seven brothers took her to be their wives, and whose wife will she be at the time of her resurrection?" (20:27–40); and (6) "Why do people say that Christ is the Son of David?" (20:41–47)

Luke 20

1 One day, as Jesus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and preaching the gospel,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ith the elders came up

2 and said to him, "Tell us by what authority you do these
things, or who it is that gave you this authority."

3 He answered them, "I also will ask you a question. Now
tell me,

4 was the baptism of John from heaven or from man?"

5 And they discussed it with one another,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did you not believe him?'

6 But if we say, 'From man,' all the people will stone us to
death, for they are convinced that John was a prophet."

7 So they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8 And Jesus said to them,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
thority I do these things."

9 And he bega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A man plant-
ed a vineyard and let it out to tenants and went into another
country for a long while.

10 When the time ca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so
that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Memo

11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2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13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15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7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19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20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21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22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3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4 "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 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Bible Clip

눅 LUK 20:20

정탐꾼 (spies)

남의 말을 엿듣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파견하는 첩자이다.

11 And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ey also beat and treated him shamefully,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12 And he sent yet a third. This one also they wounded and cast out.

13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14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said to themselves, 'This is the heir. Let us kill him, so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15 And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16 He will come and destroy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Surely not!"

17 But he looked directly at them and said, "What then is this that is written: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18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and when it falls on anyone, it will crush him."

19 The scribes and the chief priests sought to lay hands on him at that very hour, for they perceived that he had told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feared the people.

20 So they watched him and sent spies, who pretended to be sincere, that they might catch him in something he said, so as to deliver him up to the authority and jurisdiction of the governor.

21 So they asked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rightly, and show no partiality, but truly teach the way of God.

22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or not?"

23 But he perceived their craftiness, and said to them,

24 "Show me a denarius. Whose likeness and inscription does it have?" They said, "Caesar's."

25 He said to them, "Then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emo

Memo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
다' 하였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
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
니다.

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
입니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
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
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7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
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부르고 있다.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
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9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40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
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
하셨다.

Memo

26 And they were not able in the presence of the people to catch him in what he said, but marveling at his answer they became silent.

27 There came to him some Sadducees, those who deny that there is a resurrection,

28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saying,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having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take the widow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29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ied without children.

30 And the second

31 and the third took her, and likewise all seven left no children and died.

32 Afterward the woman also died.

33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ose wife will the woman be? For the seven had her as wife."

34 And Jesus said to them, "The sons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35 but those who are considered worthy to attain to that age and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36 for they cannot die anymore, because they are equal to angels and are sons of God, being sons of the resurrection.

37 But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in the passage about the bush, where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38 Now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all live to him."

39 Then some of the scribes answered, "Teacher, you have spoken well."

40 For they no longer dared to ask him any question.

41 But he said to them, "How can they say that the Christ is David's son?

42 For David himself says in the Book of Psalm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Memo

43「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44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45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
에게 말씀하셨다.

46"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
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47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20:43

발 아래에 (Your footstool)

보좌에 앉은 왕의 발 아래 놓여 있는 발판으로, 원수를 굴복시켜 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다.

눅 LUK 20: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명예욕과 소유욕과 위선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3 unti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44 David thus calls him Lord, so how is he his son?”

45 And in the hearing of all the people he said to his disciples,

46 “Beware of the scribes, who like to walk around in long robes, and love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and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feasts,

47 who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se make long prayers. They wi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종파는 무엇입니까? (27절)
Which Jewish sect claims there is no resurrection? (20:27)

다음 구절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 )의 하나님이 아니요 ( )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 )이 살았느니라.” (38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He is not the God of ( ), but of ( ), for to him all are ( ).” (20: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현대판 사두개인들
Modern Sadducees

예수님 당시에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에 사람은 그저 현세에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모든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요점은 영생은 단순히 지상 생애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오늘에도 여전히 적합한 것으로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그의 이 주장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37-38절).

The Sadducees, known as rational realists in Jesus' day,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y thought that death would put an end to everything, so one should just be content with life in this world. Some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se days provide plausible scientific and logical evidence, denying all supernatural and spiritual things. We could call them modern-day Sadducees. The point Jesus made to the Sadducees is that eternal life is not simply a continuation of life on earth.
German theologian Karl Barth said in the final lecture during his career: "All live to him, from the Apostles to the forebears of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o not have only the right, but also relevance in the present to be heard also today." His argument draws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in the text. "But in the account of the burning bush, even Moses showed that the dead rise, for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20:37-38).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8

December 화 Tue

종말의 징조들

Signs of
the End Time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1:1-4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동전 두 개를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다(1-4절). 그런 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5-24절)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25-28절)을 주셨다. 그 후,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잎사귀들 비유(29-33절)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34-38절).

누가복음 21장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5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7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11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Reading insight

When Jesus saw the rich and a poor widow give offering in the temple, he praised the widow who offered two coins (21:1–4). Then he gave warnings of the events of the end times (21:25–28) as well as warnings of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21:5–24). Then, through the parable of the fig tree, he gave instructions on how to live in the end times (21:29–38).

Luke 21

1 Jesus looked up and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offering box,

2 and he saw a poor widow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3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4 For they all contributed out of their abundance,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5 And while some were speaking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noble stones and offerings, he said,

6 "As for these things that you see, the days will come when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7 And they asked him, "Teacher,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when these things are about to take place?"

8 And he said, "See that you are not led astray.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he!' and, 'The time is at hand!' Do not go after them.

9 And when you hear of wars and tumults, do not be terrified, for these things must first take place, but the end will not be at once."

10 Then he said to them,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11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and in various places famines and pestilences. And there will be terror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Bible Clip

눅 LUK 21:5

봉헌물 (donations, 奉獻物)

'봉헌된 제물', '성전에 놓여진 거룩한 예물'이라는 의미로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뜻한다. 여기서 '헌물'은 영어성경 NIV-gifts dedicated to God로 표기되어 있다.

눅 LUK 21:9

전쟁과 난리 (wars and commotions)

전쟁과 혼동, 혼란을 뜻하며, 무질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소요'는 영어성경 NIV-uprisings으로 표기되어 있다.

Memo

1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13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15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
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16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17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20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
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
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2 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
문이다.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
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24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
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
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
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
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
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But before all this they will lay their hands on you and
persecute you, delivering you up to the synagogues and
prisons, and you wi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governors
for my name's sake.

13 This will be your opportunity to bear witness.

14 Settle it therefore in your minds not to meditate before-
hand how to answer,

15 for I will give you a mouth and wisdom, which none of
your adversaries will be able to withstand or contradict.

16 You will be delivered up even by parents and brothers and
relatives and friends, and some of you they will put to death.

17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18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19 By your endurance you will gain your lives.

20 "But when you see Jerusalem surrounded by armies, then
know that its desolation has come near.

21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and
let those who are inside the city depart, and let not those
who are out in the country enter it,

22 for these are days of vengeance, to fulfill all that is writ-
ten.

23 Alas for women who are pregnant and for those who are
nursing infants in those days! For there will be great dis-
tress upon the earth and wrath against this people.

24 They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be led captive
among all nations, and Jerusalem will be trampled under-
foot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
filled.

25 "And there will be signs in sun and moon and stars, and
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in perplexity because of 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26 people fainting with fear and with foreboding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27 And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28 Now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raighten up
and raise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Memo

Memo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나
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
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3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
을 것이다."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35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36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37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38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
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29 And he told them a parable: "Look at the fig tree, and all the trees.

30 As soon as they come out in leaf, you see for yourselves and know that the summer is already near.

31 So also, when you see these things taking place, you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32 Tru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has taken place.

33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34 "But watch yourselves lest your hearts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cares of this life, and that day come upon you suddenly like a trap.

35 For it will come upon all who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36 But stay awake at all times, praying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take place,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37 And every day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but at night he went out and lodged on the mount called Olivet.

38 And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people came to him in the temple to hear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광경을 보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see in the temple? (21:1-2)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Why did Jesus praise the poor widow's offering? (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작은 것도 아름답다
Even small things are beautiful

흔히 사람들은 크고, 많고,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적고, 낮고 천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그 민족을 영도했던 모세의 손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하나가 쥐여져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추려내어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이 감추어진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미화로 penny와 같은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47절("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을 놓고 보면, 본문의 초점은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끝갈 데 없이 물질의 탐욕에 빠져 가난한 사람들의 것마저 등쳐먹었던 서기관들에 대한 탄식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작고 하잘것없는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Often people like things that are big, numerous, tall, and glorious. But God pays attention to what is small, little, lowly and ordinary. Moses, who rescued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and led the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for 40 years, had a run-down staff in his hand. A slingshot was held in David's hand, the boy who defeated the invincible Philistine general Goliath. Judge Gideon selected 300 warriors to fight the Midianites and in their hands were jars with trumpets and torches hidden. All of them were insignificant. However, God used them to do great and wonderful things.
In the text, Jesus sees a poor widow putting two small coins (the lowest value coin at the time, such as a penny in US currency) into the treasury and commends her for putting in more than everyone else (the rich). But looking at Luke 20:47 ("Yet they shamelessly cheat widows out of their property and then pretend to be pious by making long prayers in public. Because of this, they will be severely punished"), the focus of the text is not in the praise of the widow, but in the lamentation against the scribes who, in their endless greed for material things, devoured even the things of the poor. After all, Jesus' eyes are always on the outcasts and the little things they hold in their hands. In the sight of Jesus, they are all beautiful and precio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9

December 수 Wed

고난 당하신 예수님

Jesus in Suffering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2:24-30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22장은 다음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룟 유다의 배반(1-6절); 유월절 준비와 만찬(7-23절); 제자들 사이의 언쟁(24-30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31-34절); 보냄 받은 자를 위한 새로운 가르침(35-38절); 예수님의 눈물의 간구(39-46절); 체포당한 예수님(47-53절);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54-62절);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63-65절); 공회 앞에서 심문 받은 예수님(66-71절).

누가복음 22장

1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3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4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5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6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7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9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11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12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13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14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Reading insight

Luke 22 consists of the following accounts: the betrayal of Judas Iscariot (22:1–6); Passover preparation and supper (22:7–23); quarrels among the disciples (24–30); foretelling Peter's denial (22:31–34); new teachings for the called (35–38); Jesus' supplication in tears (22:39–46); Jesus' arrest (22:47–53); Peter's denial and repentance (22:54–62); the ridicule and insulting of Jesus (22:63–65); Jesus' trial before the council (22:66–71).

Luke 22

1 Now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drew near, which is
called the Passover.

2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seeking how to
put him to death, for they feared the people.

3 Then Satan entered into Judas called Iscariot, who was of
the number of the twelve.

4 He went away and conferred with the chief priests and offi-
cers how he might betray him to them.

5 And they were glad, and agreed to give him money.

6 So he consented and sought an opportunity to betray him
to them in the absence of a crowd.

7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on which the
Passover lamb had to be sacrificed.

8 So Jesus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prepare the
Passover for us, that we may eat it."

9 They said to him, "Where will you have us prepare it?"

10 He said to them, "Behold, when you have entered the city,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into
the house that he enters

11 and tell the master of the house, 'The Teacher says to you,
Where is the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12 And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pre-
pare it there."

13 And they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

14 And when the hour came, he reclined at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Bible Clip

눅 LUK 22:4

의논하였다

흉정을 포함하여 예수를 체포하는 방법 등의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는 모습을 말한다.

Memo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7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0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1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22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23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24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27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28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3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15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16 For I tell you I will not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
dom of God.”

17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18 For I tell you that from now on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19 And he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 And likewise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that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21 But behold, the hand of him who betrays me is with me on
the table.

22 For the Son of Man goes as it has been determined, but
woe to that man by whom he is betrayed!”

23 And they began to question one another, which of them it
could be who was going to do this.

24 A dispute also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to be regarded as the greatest.

25 And he said 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exercise
lordship over them, and those in authority over them are
called benefactors.

26 But not so with you. Rather, let the greatest among you
become as the youngest, and the leader as one who serves.

27 For who is the greater, one who reclines at table or one
who serves? Is it not the one who reclines at table? But I am
among you as the one who serves.

28 “You are those who have stayed with me in my trials,

29 and I assign to you, as my Father assigned to me, a king-
dom,

30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Memo

Memo

31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
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
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
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
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
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
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
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3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
넉하다" 하셨다.

39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
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40 그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41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
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42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43 [[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
우어 드렸다.

44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
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45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
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46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Bible Clip

눅 LUK 22:31

체질하려고 (sift you as wheat)

곡식을 이리저리 흔들며 키질하듯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필사적으로 괴롭힐 것을 묘사한 표현이다.

31 "Simon, Simon, behold, Satan demanded to have you,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32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when you have turned again, strengthen your brothers."

33 Peter said to him,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both to prison and to death."

34 Jesus said, "I tell you, Peter, the rooster will not crow this day, until you deny three times that you know me."

35 And he said to them, "When I sent you out with no moneybag or knapsack or sandals, did you lack anything?" They said, "Nothing."

36 He said to them, "But now let the one who has a moneybag take it, and likewise a knapsack. And let the one who has no sword sell his cloak and buy one.

37 For I tell you that this Scripture must be fulfilled in me: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For what is written about me has its fulfillment."

38 And they said, "Look, Lord, here are two swords." And he said to them, "It is enough."

39 And he came out and went, as was his custom, to the Mount of Olives, and the disciples followed him.

40 And when he came to the place, he said to them,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41 And he withdrew from them about a stone's throw, and knelt down and prayed,

42 saying,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43 And there appeared to him an angel from heaven, strengthening him.

44 And being in a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became lik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45 And when he rose from prayer, he came to the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46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leeping? Rise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Memo

Memo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49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50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5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52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54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55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여 앉아 있었다.

56 그 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57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59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60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61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Bible Clip

눅 LUK 22:52

몽둥이 (clubs)

무기로 사용하는 짤막하고 단단한 나무 몽둥이를 말한다.

47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re came a crowd, and the man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as leading them. He drew near to Jesus to kiss him,

48 but Jesus said to him, "Judas, would you betray the Son of Man with a kiss?"

49 And when those who were around him saw what would follow, they said, "Lord, shall we strike with the sword?"

50 And one of them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right ear.

51 But Jesus said, "No more of this!" And he touched his ear and healed him.

52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and officers of the temple and elders, who had come out against hi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lubs?

53 When I was with you day after day in the temple, you did not lay hands on me. But this is your hour, and the power of darkness."

54 Then they seized him and led him away, bringing him into the high priest's house, and Peter was following at a distance.

55 And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among them.

56 Then a servant girl, seeing him as he sat in the light and looking closely at him, said, "This man also was with him."

57 But he denied it, saying, "Woman, I do not know him."

58 And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ne of them." But Peter said, "Man, I am not."

59 And after an interval of about an hour still another insisted, saying, "Certainly this man also was with him, for he too is a Galilean."

60 But Peter said, "Man, I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 rooster crowed.

61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Memo

Memo

62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63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64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65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66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67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68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69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70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71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Bible Clip

눅 LUK 22:66

공의회 (council, 公議會)

신약에서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을 주관하는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한다. 약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했다.

62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63 Now the men who were holding Jesus in custody were
mocking him as they beat him.

64 They also blindfolded him and kept asking him, "Prophe-
sy! Who is it that struck you?"

65 And they said many other things against him, blaspheming him.

66 When day came, the assembly of the elders of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both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led him away to their council, and they said,

67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But he said to them, "If I
tell you, you will not believe,

68 and if I ask you, you will not answer.

69 But from now on the Son of Man shall b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power of God."

70 So they all said, "Are you the Son of God, then?" And he
said to them, "You say that I am."

71 Then they said, "What further testimony do we need? We
have heard it ourselves from his own lip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누가 큰지 말다툼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습니까? (26-27절)
What lesson did Jesus give the disciples who were arguing over who was the greatest? (22:26-27)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9-30절)
What was the promise Jesus made to his disciples when he said, "you have stayed with me in my time of trial." (22:29-3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섬김의 역설
The paradox of service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26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항복하고, 지키기 위해 내어주며, 좋아지기 위해 고생하며, 살기 위해 죽는다"(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이것은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섬김의 역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섬긴다"(we serve to rule over).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결코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장 큰 지위를 얻으려 하거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또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빌 2:5-11).

During the Last Supper before Jesu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the disciples argued with each other over who was the greatest among them. To such disciples, Jesus gave a teaching on servanthood: "In this world the kings and great men lord it over their people, yet they are called 'friends of the people.'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Those who are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take the lowest rank, and the leader should be like a servant" (22:26). There is a saying: "We surrender to win; we give away to keep; we suffer to get well; we die to live." This is a paradoxical truth. Jesus spoke of the paradox of service in the text "we serve to rule over."
A leader in the kingdom of God never intentionally seeks to occupy a high position, to attain the highest position that people will envy, or to enjoy great wealth and honor. They simply perform their role faithfully in an attitude of silently serving others. Also, a person who shows an example of true servanthood is not easily seen by people because he does not act pretentious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others. But in the end, the person unwittingly becomes the object of respect and takes a leadership position. Jesus was just that. The Son of God came into the world in the form of a servant, humbled himself, and was crucified to death. However, God exalted him and made him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C.f. Phil 2:5-11).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30

December 목 Thu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Jesus crucifie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3:32-43

새269장(통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보냈다(1-7절). 헤롯은 예수님을 심문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8-12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으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군중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13-25절). 결국, 예수님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26-38절), 그중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다(39-43절). 예수님은 운명하셨고(44-49절),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취하여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 두었다(50-56절).

누가복음 23장

1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5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6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7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9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Reading insight

Pilate sent Jesus to Herod because he could not find any particular charge against him. (23:1–7) Herod sent Jesus back to Pilate after interrogation. (23:8–12) Pilate tried to acquit Jesus, but he could not overrule the crowd demanding crucifixion. (23:13–25) Eventually, Jesus was crucified with two criminals (23:26–38), one of whom received a promise from Jesus to enter paradise. (23:39–43) Jesus died (23:44–49), and Joseph of Arimathea, a member of the council, took the body of Jesus, wrapped it in linen cloths, and placed it in a tomb (23:50–56).

Luke 23

1 Then the whole company of them arose and brought him
before Pilate.

2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found this
man misleading our nation and forbidding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and saying that he himself is Christ, a king."

3 And Pilate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nd he answered him, "You have said so."

4 Then Pilate sai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rowds, "I find
no guilt in this man.

5 But they were urgent, saying, "He stirs up the people,
teaching throughout all Judea, from Galilee even to this
place."

6 When Pilate heard this, he asked whether the man was a
Galilean.

7 And when he learned that he belonged to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over to Herod, who was himself in Jerusalem at that time.

8 When Herod saw Jesus, he was very glad, for he had long
desired to see him, because he had heard about him, and he
was hoping to see some sign done by him.

9 So he questioned him at some length, but he made no answer.

10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tood by, vehemently accusing him.

Bible Clip

눅 LUK 23:1

빌라도 (Pilate)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로마 총독이다.

Memo

11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15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6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17 (없음)

18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

19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1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2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23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Bible Clip

눅 LUK 23:18

바라바 (Barabbas)

바라바는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서 살인하고 포박한 자이다,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 '강도' 등으로 묘사된다.

11 And Herod with his soldiers treated him with contempt and mocked him. Then, arraying him in splendid clothing, he sent him back to Pilate.

12 And Herod and Pilate became friends with each other that very day, for before this they had been at enmity with each other.

13 Pilate then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and the people,

14 and said to them, "You brought me this man as one who was misleading the people. And after examining him before you, behold, I did not find this man guilty of any of your charges against him

15 Neither did Herod, for he sent him back to us. Look, nothing deserving death has been done by him.

16 I will therefore punish and release him."

18 But they all cried out together, "Away with this man, and release to us Barabbas"--

19 a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an insurrection started in the city and for murder

20 Pilate addressed them once more, desiring to release Jesus,

21 but they kept shouting, "Crucify, crucify him!

22 A third time he said to them, "Why, what evil has he done? I have found in him no guilt deserving death. I will therefore punish and release him."

23 But they were urgent, demanding with loud cries that he should be crucified. And their voices prevailed.

24 So Pilate decided that their demand should be granted.

25 He released the man who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insurrection and murder, for whom they asked, but he delivered Jesus over to their will.

26 And as they led him away, they seized one Simon of Cyrene, who was coming in from the country, and laid on him the cross, to carry it behind Jesus.

27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multitude of the people and of women who were mourning and lamenting for him.

Memo

Memo

28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
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29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
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31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32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
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4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
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
누어 가졌다.

35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
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
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6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
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
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
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
하여라."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
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
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
해 주십시오."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
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8 But turning to them Jesus said,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but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29 For behold, the days are coming when they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and the wombs that never bore and
the breasts that never nursed!’

30 Then they will begin to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

31 For if they do these things when the wood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32 Two others, who were criminals, were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33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that is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34 And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cast lots to divide his garments.

35 And the people stood by, watching, but the rulers scoffed
at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his Chosen One!”

36 The soldiers also mocked him, coming up and offering
him sour wine

37 and saying,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
self!”

38 There was also an inscription over him,”This is the King
of the Jews.

39 One of the criminals who were hanged railed at him, say-
ing, “Are you not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40 But the other rebuked him, saying, “Do you not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41 And we indeed justly,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42 And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43 And he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emo

Memo

44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
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
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47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48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
을 치면서 돌아갔다.

49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
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53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
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
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54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55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
펴보았다.

56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
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44 It was now about the sixth hour, and there was darkness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45 while the sun's light failed.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46 Then Jesus, calling out with a loud voice, sai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And having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47 Now when the centurion saw what had taken place, he
praised God, saying, "Certainly this man was innocent!"

48 And all the crowds that had assembled for this spectacle,
when they saw what had taken place, returned home beat-
ing their breasts.

49 And all his acquaintances and the women who had fol-
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t a distance watching these
things.

50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from the Jewish
town of Arimathea. He was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righteous man,

51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and
he was looking for the kingdom of God.

52 This man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53 Then he took it down and wrapped it in a linen shroud and
laid him in a tomb cut in stone, where no one had ever yet
been laid.

54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Sabbath was begin-
ning.

55 The women who had come with him from Galilee fol-
lowed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56 Then they returned and prepared spices and ointments.
On the Sabbath they rested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39절)
How did one of the criminals on the cross slander Jesus? (23:39)

그 행악자를 꾸짖은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43절)
When another criminal who rebuked the slandering criminal aske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ow did Jesus respond? (23:4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 개의 십자가
Three crosses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해골의 곳'이라 불린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있었고,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끝내 부인했던 한 강도의 십자가는 '완패'(完敗)의 십자가였습니다. 반역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강도가 진 십자가는 '역전승'(逆轉勝)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끄러운 전과로 가득했지만, 내세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초로 낙원에 들어가는 역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말씀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치의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요 19:30)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승'(完勝)의 십자가입니다.

Three crosses stood on the hill of Golgotha, called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Jesus died. There was a cross with Jesus hanging in the center, and two criminals were nailed together to the left and right of Jesus. It is not clear what specific wrong they committed, but they must have committed a crime serious enough to be punished with crucifixion. Each of the three crosses has a meaning. The cross of the criminal who mocked Jesus and eventually denied him was a cross of "the ultimate loser." It was the cross of defiance. The cross of the other criminal was the cross of "A come from behind victory."
He was a person who succeeded in a splendid comeback by believing in Jesus, realizing his own sin, and repenting while helpless on the cross. Although his life on this earth was full of shameful crimes, in the hereafter he was honored to enter Paradise for the first time with the Lord. Also, the story of the criminal who was saved shows that by the time Jesus died on the cross, the word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were fulfilled (Luke 19:10). Jesus finally died without any regrets, exclaiming "It is finished" (John 19:30). The cross of Jesus is the cross of complete victo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31

December 금 Fri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

The Resurrection and Appearance of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24:22-35

(복음성가)
엠마오의 두 제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가 직접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다(1-12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고(13-35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나타나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36-43절). 그 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44-49절)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50-53절).

누가복음 24장

1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3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4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
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
섰다.
5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
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
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7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
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8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9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
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
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
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
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Reading insight

When the women went to the tomb with spices at dawn on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two angels announce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women informed the apostles, and Peter himself confirmed that the tomb was empty (24:1–12).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ir way to Emmaus and taught them about Christ (24:13–35), and also appeared to the gatherings of his disciples and ate grilled fish together (24:24:36–43). After that, he taught them to understand the Scripture (24:44–49) and after blessing his disciples he ascended into heaven (24:50–53).

Luke 24

1 But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t early dawn, they went to
the tomb, taking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2 And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3 but when they went in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4 While they were perplexed about this, behold, two men
stood by them in dazzling apparel.

5 And as they were frightened and bowed their faces to the
ground,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6 He is not here, but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7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rise."

8 And they remembered his words,

9 and returning from the tomb they told all these things to
the eleven and to all the rest.

10 Now it was Mary Magdalene and Joanna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 women with them who told
these things to the apostles,

11 but these words seemed to them an idle tale, and they did
not believe them.

12 But Peter rose and ran to the tomb; stooping and looking
in, he saw the linen cloths by themselves; and he went home
marveling at what had happened.

Bible Clip

눅 LUK 24:12

삼베 (linen)

아마로 짠 고급 천으로, 여기서는 시신을 둘러싸는 폭이 좁은 띠나 붕대를 말한다.

Memo

13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
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
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
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
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
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
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
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
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
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
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
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
명하여 주셨다.

28 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
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Bible Clip

눅 LUK 24:13

엠마오 (Emmaus)

'따뜻한 우물', '온천'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북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That very day two of them were going to a village named
Emmaus, about seven miles from Jerusalem,

14 and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all these
things that had happened.

15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together,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16 But their eyes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17 And he said to them, "What is this conversation that you
are holding with each other as you walk?" And they stood
still, looking sad.

18 Then one of them, named Cleopas, answered him, "Are
you the only visitor to Jerusalem who does no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there in these days?"

19 And he said to them, "What things?" And they said to
him,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a man who was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20 and how our chief priests and rulers delivered him up to
be condemned to death, and crucified him.

21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to redeem Israel.
Yes, and besides all this, it is now the third day since these
things happened.

22 Moreover, some women of our company amazed us.
They were at the tomb early in the morning,

23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back say-
ing that they had even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that
he was alive.

24 Some of those who were with us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just as the women had said, but him they did not
see."

25 And he said to them, "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26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enter into his glory?"

27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
pret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28 So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He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Memo

Memo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42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43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45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29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aying, "Stay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 is now far spent."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30 When he was at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31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32 They said to each 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33 And they rose that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y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34 saying, "The Lord ha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35 Then they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36 As they were talking about these things,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to you!"

37 But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and thought they
saw a spirit.

38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s arise in your hearts?

39 See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For a spiri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that I have."

40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41 And while they still disbelieved for joy and were marvel-
ing, he said to them, "Have you anything here to eat?"

42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43 and he took it and ate before them.

44 Then he said to them, "These are my words that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45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Memo

Memo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
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
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47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
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50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46 and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and on the third day rise from the dead,

47 and that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should be pro-
claim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
lem.

48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49 And behold, I am sending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50 Then he led them out as far as Bethany, and lifting up his
hands he blessed them.

51 While he blessed them, he parted from them and was car-
ried up into heaven.

52 And they worshi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53 and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 blessing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책망하신 말씀은 무엇 입니까? (25-26절)
How did the resurrected Jesus rebuke the two men on their way to Emmaus after hearing their conversation? (24:25-26)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What happened when the resurrected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gave it to the two men at the meal? (24:3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최후의 승자
The ultimate winner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웃음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에 속한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비겁한 빌라도는 자신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자기들이 최후로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로 웃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최후로 웃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최후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The hearts of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always filled with joy. No matter what,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in life, they never lose joy. They do not despair or give up easily. They are not capricious according to their moods or emotion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ells us that God has given us the last laugh. There is a saying, "The person who laughs last is the ultimate winner." In that sense, God is the ultimate victor. At that time, the council members belonging to the Sanhedrin, the highest body of Judaism, who judged Jesus,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Cowardly Pilate who sentenced Jesus to be crucified even though he knew Jesus was innocent, thought he was the last to laugh. Even the Roman soldiers who whipped Jesus, punched Him, spit on Him, ridiculed Him, and finally crucified Him, thought they were the last to laugh. But it is God who laughs last.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tomb, laughed for the last time. All Christians who participated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ill have the last laugh: we all will be the ultimate winn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10, $20, $30, $50 per month □하루 $1 per day □한달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1년 12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 누가복음 5:1-11**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잃어버린 아버지 | 누가복음 15:25-3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공평함의 복음 | 누가복음 1:46-56**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닭 울음 소리 | 누가복음 22:31-34, 54-62**

1주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5:1-11**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497장(통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복음성가)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① 여는 질문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말씀을 가르치신 후,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진맥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편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수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배 두척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7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8절)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모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서 기자와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4:19; 막 1:17).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람 낚는 어부'(fishers of men)라는 표현을 '사람을 [산 채로] 취하는 일'(catching men)로 바꾼 것입니다(아쉽게도 개

역 성경에는 '산 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희랍어 단어('조그론')의 뜻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생포하다'(딤후 2:26)로써 칠십인역(LXX)에서는 흔히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민 31:15, 18; 신 20:16). 그러므로 누가복음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름 아닌 사람을 생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자입니다. 즉, 전도란 사람을 생포하여 죄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2.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절)

④ 삶 속으로

1.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허탈한 삶이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전적인 포기가 제자직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5: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⑥ 자녀와 나눔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아버지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① 여는 질문

아버지가 나로 인해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면서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존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당시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변합니다. 맏아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29-30절). 이 말속에서 맏아들은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실상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맏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맏아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28절).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와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말에 발끈하여 아예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그를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했다'는 말의 희랍어 동사는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호소하다, 간청하다는 뜻과 더불어 달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바로 여기에서 '보혜사'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고. 요한복음 16:7). 맏아들의 반항에 대해 아버지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호소했고 사랑으로 달랬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31-32절). 아버지는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얘(my son)"라고 부르

셨는데, 아버지가 한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또 너도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속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음에 품고 살던 두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한 암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에게는 품삯이 주어지나 아들에게는 유산이 주어집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맏아들이 분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9-30절)

2. 그렇게 분노하여 투덜거리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2절)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면, 평소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인처럼 의무감에 붙들려 섬김과 복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처럼 기쁨으로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까?

2.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31-32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⑥ 자녀와 나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아빠가 나로 인해 가장 기뻐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1:46-56**

공평함의 복음

새117장(통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새120장(통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새126장(통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① 여는 질문

이민생활 중에 억울하게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본문은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명칭은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Vulgate) 성경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주를 찬양했다"라는 문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찬가의 내용은 본문 51-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평등화'(equalizing), 혹은 '동등화'(leveling)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며, 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될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 메시야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계급차별, 지식차별, 외모차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중에 차별과 싸우시고 친히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함의 복음은 모든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곧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장차 이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알고 찬송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온 세상에 평등과 동등의 가치를 구현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등함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8절)

2.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　　) 자들을 흩으셨고 (　　)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　　) 자를 높이셨고 (　　)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　　)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51-53절)

④ 삶 속으로

1.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화의 복음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1:51-53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⑥ 자녀와 나눔

누군가 나를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이유로 차별했나요?

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22:31-34, 54-62**

닭 울음 소리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① 여는 질문

누군가에 의해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② 본문 이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31-32절).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종종 사탄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만심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일종의 허황된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34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앉았는데 마침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라"라고 다그치자 그 자리에서 정확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통곡의 회개로 이끈 것은 예수님을 세 번씩 연거푸 부인했던 그를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닭이 울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닭 울음소리는 자만심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일깨운 소리였습니다. 결국,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훗날 그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서 복음 전파의 선봉장이 되게 했던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베드로는 닭 울기 전,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4절)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62절)

④ 삶 속으로

1.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혹시 한 해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 한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돌이켰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⑤ 암송 구절 - 누가복음 22:61-62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⑥ 자녀와 나눔

올 한 해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You will fish for people"

1 Opening Question

Share an experience when you tried your best and didn't get the results you desired.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One day Jesus saw two boats on the Sea of Galilee (Lake Gennesaret). While the fishermen were washing their nets when they got off the boat, Jesus got into Simon Peter's boat and taught them the Word. Without any explanation, Jesus told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4). In fact, they had fished all night, but did not catch a single fish. Thus, in the morning, exhausted, they were washing their nets. Jesus knew the situation and said to Peter, "Go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Then Peter answered, "Teach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5:5).

In obedience to Jesus' command, Peter got into the boat and lowered his nets into the depths of the water. As a result, he caught so many fish that the nets were torn. Unable to do anything on his own, he turned to James and John, his partners in another boat, for help. He filled two boats with the fish he had caught, and the boats were submerged in the sea (5:7). Then Peter fell down at Jesus' knees and confessed, "Depart from me, Lord, I am a sinner" (5:8). After that, all of them brought their boats onshore, left everything behind,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He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to Simon Peter, "Do not be afraid, for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5:10). Regarding the same incident, the writers of Matthew and Mark recorded Jesus saying,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C.f. Matt 4:19; Mark 1:17). Therefore, the writer of Luke changed the expression "fishers of men" to "catching men [alive]." (Unfortunately, in the ESV, the Greek word "zogron" which means "alive" was not translated literally.)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word is "to

be taken alive" (2 Tim 2:26), and is often used in the Septuagint (LXX) to mean "to deliver life from danger." (C.f. Num 31:15; Deut 20:16) Therefore, according to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a disciple of Jesus Christ is an evangelist who brings people alive and leads them to salvation. In other words, evangelism is about taking people alive and delivering them from the dangers of sin and death.

3 Into the Word

1.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labored all night and did not catch any fish? (5:4)

2. What did Jesus say to Peter, who was shocked to see so many fish caught that the nets were torn? (5:10)

4 Into our Life

1. The fact they caught so many fish that their nets were torn is a symbol of how empty the previous lives of the Galilean fishermen at that time was. This amazing miraculous event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If you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change in your life since meeting Jesus, please share.

2. Luke 5:11 says,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Jesus." This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total renunciation of possessions is a prerequisite for discipleship. Please share what you will give up to follow Jesus.

5 Memory Verse - Luke 5: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Share how you have changed since you believed in Jesus?

Prodigal Father

1 Opening Question

Please share something you did that made your father happ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 the older son, who grumbled in anger over his father who had prepared a big feast for his younger brother, his father was nothing but lost. The older son in this parable represents the Pharisees and scribes, the self-proclaimed righteous people of that time. The older son said. "I have served my father for many years, and I have never disobeyed his orders, but he never gave me a young goat so that me and my friends could enjoy it. When this son who squandered his father's livelihood with prostitutes came back, he killed a fattened calf for him!" (15: 29–30). In these words, we see that the older son never left his father's arms, but in reality, he lost his father. In other words, in the opinion of the older son, the father was not an object of love and respect, but of service. He was like a master who gave strict order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way a father treats his older son who has lost his real father. "[The eldest son]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but his father came out and persuaded him" (15:28). The eldest son was furious at the news that his father had held a feast when his younger brother returned and had no intention of entering the house at all. Then his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encouraged him. Here, the Greek verb for "recommendation" is "parakaleo", which means to appeal, to plead with, as well as to appease, comfort, invite. (The word "Comforter" came from the word "parakletos" [C.f. John 16:7]). The father did not command the rebellious older son. On the contrary, he appealed and comforted him with love.

The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and comforted the eldest son, saying: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and he was lost and is found" (15:31–32). His father called him "my son" in a sweet voice, and he said, "You are my son and I am your father," meaning "you are always with me, and I am always with you." In particular, we see that in the words "all that is mine is yours," there is an allusion to his desire for the inheritance that the father will leave to his two sons. A slave is given a wage, but a son is given an inheritance

③ Into the Word

1. Why was the firstborn son angry and did not go into the house? (15:29–30)

2.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eldest son who complained in anger? (15:31–32)

④ Into our Life

1. If God is my father, how do I usually deal with God the Father? Are you just serving and obeying Him like a servant, caught up in a sense of duty? Or are you giving Him love and respect with joy like a son?

2. Please share the problems the inertia–soaked religious life has.

⑤ Memory Verse - Luke 15:31-32

"And he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Was there something that pleased your father? What is the most recent thing you have done that pleased him?

Gospel of Equality

1 Opening Question

If you have been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during your immigration life, please shar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text is the Hymn of Mary, known by the name of the Magnificat. This name is derived from the phrase Mary "praised the Lord" in Luke 1:46 of the Latin Vulgate Bible. The content of the hymn tha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are verses 51-53.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This song reveals that when Jesus comes into the world he will do the work of "equalizing" or "leveling". In other words, the song refers to the work of lowering the high and exalting the low, making the hungry full, and sending the rich away empty-handed, so that all people will be equal before God. In fact, this is the core of the gospel that the writer of the Gospel of Luke is trying to convey through Jesus. But these words are similar to Isaiah 40:3-5, which the prophet Isaiah had long ago prophesied about the Mess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all people wi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discrimination from "the powerful" has existed in this world. Even now,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racism, sexism, economic disparity, class discrimination, knowledge discrimination, and appearance discrimination. During the ministry of his public life, Jesus fou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eliminated discrimination

himself. Therefore, Jesus Christ's gospel of equality directly rejects all discrimination.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is the vision Jesus had. Mary had testified with her hymns, knowing in advance that baby Jesus in her own womb would do this in the future. Jesus Christ is the one who embodies the value of equality in the world. Therefore, all Christians must be messengers of this gospel of equality.

③ Into the Word

1. Mary sings in Luke 1:47, "My heart rejoiced in God my Savior." Why? (1:48)

2. Please fill in the blanks: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 )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 )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 He has filled the ( )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 ) away empty. (1:51–53)

④ Into our Life

1. What are the fundamental reasons why people discriminate against others?

2. Let's share what the church should do when faced with the gospel of equalization of Jesus Christ.

⑤ Memory Verse - Luke 1:51-53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the rich he has sent away empty."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s anyone ever discriminated against me? What did you think at the time?
Or, have I ever discriminated against others? Why did you discriminate?

The crowing of the rooster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been betrayed by someone?
Please share how you felt at that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esus gave Peter this warning: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manded to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22:31–32). Jesus spoke these words looking into the future of Simon Peter. It is a promise that Jesus will keep praying for him even though Peter will be often tempted by Satan.

Peter must have been conceited after he heard the words of this promise. So he cried out,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It's kind of like a false promise. Hearing his words, Jesus said,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that you know me three times" (22:34). Not surprisingly, when Jesus was arrested and entered the high priest's house, Peter followed him from a distance. Then he sat among the people who were sitting around the fire. When people recognized him and insisted, "You were with him, too," he denied Jesus exactly three times on the spot. At that very moment, the rooster crowed. Then,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Peter, he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said,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In fact, what led Peter to weeping repentance must have been the Lord's gaze on the one who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in a row. However, if the rooster hadn't crowed at that moment, he might not have remembered the words of the Lord. The crowing of a rooster awakened Peter from his pride.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a sound that awakened Peter, who had not prayed but depended on his own strength. In the end, the crowing of a

rooster was like the merciful voice of the Lord who made Peter realize his own weakness, develop his strong faith, and become the vanguard of evangelism.

3 Into the Word

1. How many times did Peter deny that he knew Jesus before the rooster crowed? (22:34)

2. What did Peter do when he heard the crowing of a rooster and remembered what Jesus had said? (22:62)

4 Into our Life

1. Have you made any promises to the Lor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f there are any promises you haven't kept in the past year, please share them.

2. Hearing the rooster crow, Peter came to his senses, thoroughly turned away from his sins and repented. Please share what you experienced during the year when you were reminded of the Word of the Lord and changed your heart through some intermediary.

5 Memory Verse - Luke 22:61-62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you have not been able to keep a promise you made with someone over the past year, what is the reason for not keeping your promise?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 3022587**
Country : **Honduras**
Serving At :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 **Costa Rica – San Josè**

Jimenez Rojas, Yorleni R.

Yorleni R. Jiménez Rojas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mission program director for the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She is based in Tegucigalpa, Honduras.

Ms. Rojas' program focuses on congregational development. Her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developing, promot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strategic directions for programming; working with Honduran entities in advancing general programming; and identifying and administering mission funds congruent with programming.

Although Methodism came to the northern coast of Honduras 100 years ago through British Methodism, and later with the Methodist Church of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t is fairly new for the Honduran Spanish-speaking community. The mission in Honduras began in 1998. In 2002, the Honduras Initiative officially became a United Methodist mission. It currently includes 19 congregations and 53 faith communities. As an emerging new church, the mission is showing urgent need for pastors and the development of clergy and lay leadership.

The Honduran Mission constituency is largely composed of economically marginalized people with limited formal education. One area getting Ms. Rojas' attention is in-country networking and alliances with other secular, nongovernmental and Honduran religious organizations. Fostering those relationships not only strengthens the Honduran Mission with national

resources, but also continues to forge its Honduran identity and empowers the cultural aspect of the mission. Ms. Rojas' position is crucial in guiding the Honduran Mission to maturity.

Born in Costa Rica, Ms. Rojas was 8 years old when her family converted to Christianity. Passionate about studying the Scriptures, she said, "I had a burning desire to serve God." As a youth, she taught Sunday school and encouraged others to follow Jesus. Entering the university, she began studies in psychology and journalism. "I had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he recalled, "and psychology was a good medium for it. The journalism career I left aside because of economic limitations." She earned a psycholog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osta Rica and started pursuing a master's degree with an emphasis on the Old Testament.

Prior to her current assignment, Ms. Rojas was a psychotherapist at Casa Main Project, working with girls ages 2 to 12 who had suffered abuse. She helped to plant and served as a pastor of Jesucrista Pan de Vida (Jesus Christ Bread of Life), an independent church. In charge of Christian education, she also preached. She experienced what she called "a second stage of questioning in my Christian pilgrimage, which had been characterized by much service. I began a search to find a genuine Christian spirituality, centered on being and not so much on doing (activism)," she said. "This helped 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human nature, in contrast to the divine nature, and to be able to resize issues such as faith, grace, salvation and mission."

Confronted by multiple losses, Ms. Rojas entered what she termed "a time of dispossession, where only the grace and love of God sustained me. God comforted me and guided me through a process of healing and freedom, and made me resize my ministerial call," she said. "My fervent desire is to arrange my life so that God's purpose is fulfilled in me, and that everything he has given me is at his service."

Ms. Rojas has a daughter, Rebeca, who is a member of Comunidad Cristina Perdonados para Servir (Community Cristina Forgiven to Serve) in San José, Costa Rica. The church is part of an independent denomination.

Contact Info: yjimenezrojas@umcmission.org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중보기도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중보기도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인 셈이다.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하다(출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한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화를 거두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 것 역시 중보기도에 속한다(창 18:16-33).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눅 22:32),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요 17장)'를 드리셨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원리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다. 예컨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청원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등등.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 경우에도 중보기도가 가장 어려웠다.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은 중보기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고(고전 8:1)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논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다. 사랑이 있는 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중보기도가 터져 나온다.

또한 중보기도는 믿음의 문제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중보기도가 실제로 그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직하게 믿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임명받았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벧전 2:9, 계 1:6), 제사장 직무의 중심은 중보에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중보기도에 대해 고민하던 중 깨달은 게 있다.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영성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우주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의식 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혼이 벌이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여 돕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여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중보기도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몇 가지 안내를 따라 훈련해보기를 권한다.

첫째,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둘째,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라. 중보기도에서도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두라. 그에게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빌고, 그 영적 능력으로 그가 봉착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으라. 중보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주는 '부수적인 은혜'이다.

넷째, 기도의 관심을 넓혀 가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통곡하셨었다(눅 20:41-44). 우리도 중보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아야 한다. 주님처럼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중보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임을 믿어야 한다.

다섯 째,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을 별도로 할애라. 관심을 넓혀 가다 보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 이 많은 대상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려면 목록을 만들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이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중보해야 할 사람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말로 명단을 훑어 내리고 만다. 이 경우, 중보의 책임을 다했다는 자기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의문이다. 중보기도의 대상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하루에 한 그룹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섯 째,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도 대상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강한 연대감이 형성된다. 기도사역으로 형성된 연대감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된다.

일곱째, 중보기도의 순간을 포착하라. 중보기도 방식 중에 소위 '총알 기도(canon prayer)' 혹은 '화살 기도(arrow prayer)'라는 것이 있는데, 즉석에서 짧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가 필요한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할 기회를 잃는다. 그 기도는 비록 짧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모두 중보기도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중보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 기도로써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라는 고귀한 부름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세인 것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11

피할 수 없는 광야, 피할 수 있는 광야

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두 번의 큰 광야를 경험했다.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 광야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시나이 광야를 통과했다. 두 번째 광야는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기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났던 광야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광야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광야였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광야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광야였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겪지 않았을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 불망 불명 불순종을 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40년이

나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가 70년동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난 이야기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에 돌아가도록 하셨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광야에 모래 구덩이 속에 파묻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다. 가나안(이집트, 왕궁)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는 쫓겨서 들어간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들어간 광야였다.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 없이 지난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한 광야였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nobody로 살아야 했지만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somebody가 되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모세의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광야와 같은 광야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통과한 광야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광야를 연상시킨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광야에서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나와 출애굽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광야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셨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말씀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율법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기적이 다반사였다. 매일 기적을 보며 살았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일체를 다 책임져 주셨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냈는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들어간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

야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 에서처럼 나타나시지 않았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 때도 그랬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광야는 심판을 받고 있는 광야였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라고 들여보낸 광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들여보내신 광야였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지났던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한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멀리멀리 계셨다. 안 보였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달려오셨는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넘어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모르는 체하셨다. 징벌의 광야, 심판의 광야였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다 첫 번째 광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신을 차렸다.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복역의 기간"을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으로 단축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처음에 선고한 대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2년에서 40년으로 형이 늘었지만, 두 번째 광야에서는 모범수였는데도 70년 형을 다 채운 다음에야 풀려나게 하셨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구원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 가나안을 지켜야 한다. 그곳에서 kick out 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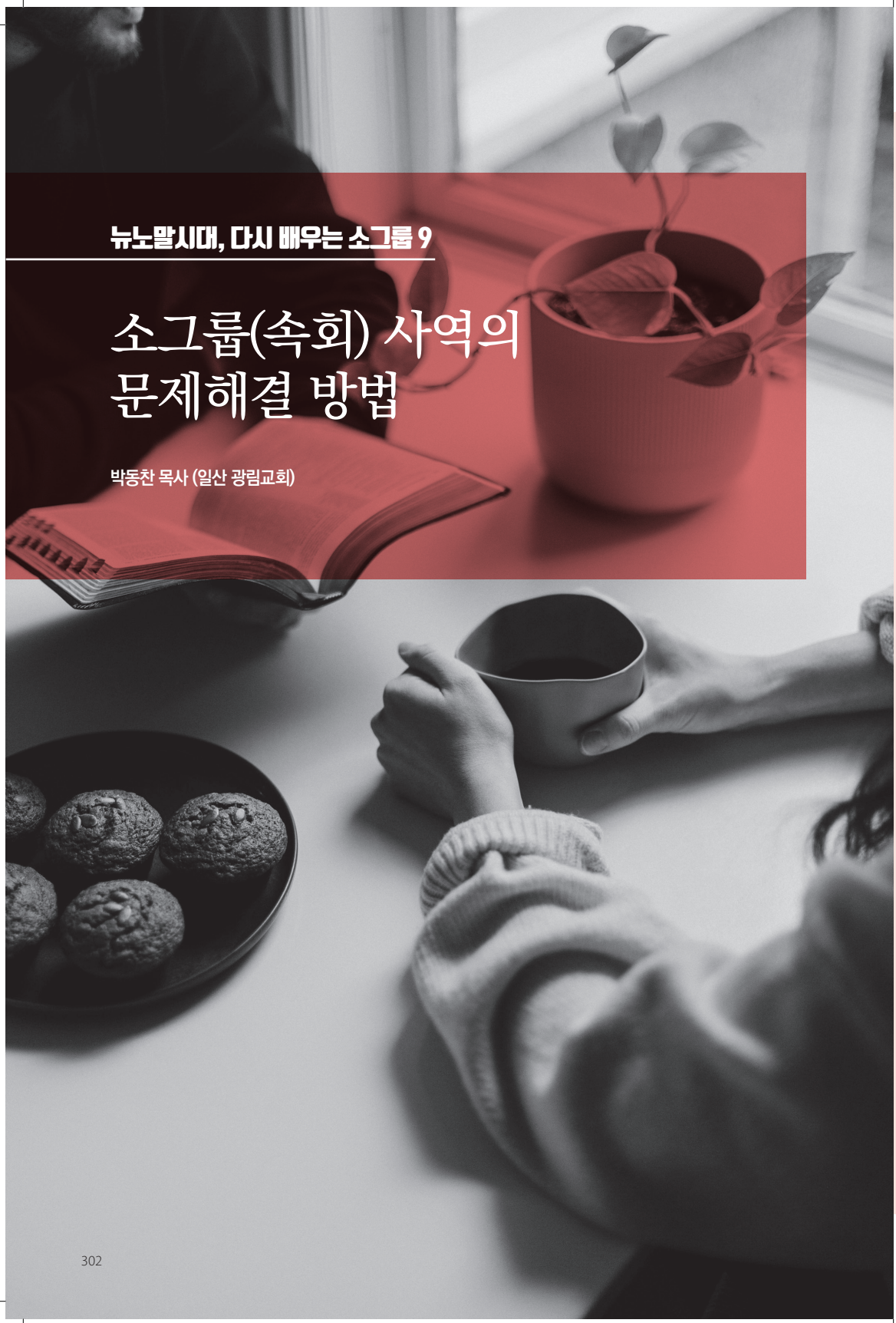
첫 번째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은 계속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만 했다.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바벨론에서 지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 나라를 잃었다. 나라가 망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자 회당을 세웠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면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가나안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이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탈무드도 이 시기에 기록되었다. 바벨론 포로기에 진정한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가나안 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교가 시작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첫 번째 광야(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신앙이 700년 이상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진짜 밀월 기간은 출애굽 광야도 아니었고 가나안 정착 시대도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광야 시기에 영적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실망시켰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바벨론 포로)를 지나면서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광야는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광야였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광야가 되게 해야 한다.



뉴노말시대, 다시 배우는 소그룹 9

소그룹(속회) 사역의 문제해결 방법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소그룹(속회)을 운영할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교인들을 소그룹(속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문제, 소그룹(속회)원들을 격려하는 효과적인 방법,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 1 어떻게 권면해야 소그룹(속회)에 참여할까요?

소그룹 리더(속장)로서 처음 또는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소그룹(속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의 소그룹(속회)이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그룹(속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속회)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권면을 위해선 소그룹(속회)에 대한 리더(속장)의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증을 준비하여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곳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회는 위로와 힘을 얻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를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위로와 힘을 얻는 곳입니다. 리더(속장)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온 소그룹(속회)원들이 함께 위로하고. 붙잡아 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문제를 이기게 되었던 구체적인 간증들을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9~10

소그룹(속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참고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모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소그룹(속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신앙적인 분별과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게 될 때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논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15:22(새번역)

소그룹(속회)은 거룩함(성화)을 이루어 가는 상호 돌봄이 일어나는 곳임을 강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생존경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는 이들을 동료이기보다 경쟁자로서 인식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내어 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소그룹(속회)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잠언27:17(새번역)

문제 2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소그룹(속회)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작은 장점이라

도 찾아서 칭찬하면 소그룹(속회)원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허물이 있다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덮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위해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격려는 도리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더(속장)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격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13:13~15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대부분 격려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경청이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원이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들어 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격려는 이해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은 카드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어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 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격려의 방법입니다.

문제 3 소그룹(속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그룹(속회)은 여러 다양한 신앙의 수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선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소그룹(속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갈등은 철저하게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다 보면 말씀 앞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성향들로 인해 관계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적인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와 상의하며 반드시 소그룹(속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원들간의 표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 그 원인과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면한 갈등이 비판과 정죄로 끝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의 '쓴 뿌리'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속회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 이면에 있는 각자의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깊은 감정들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표출된 갈등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리더(속장)는 갈등해결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더(속장)는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그룹(속회)원들 사이에 상호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의 과정 가운데 소그룹(속회)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열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속장)는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상호 책임의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갈등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갈등의 해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리더(속장)는 소그룹(속회) 내의 갈등과 긴장을 인정하고 용인하면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의 문제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믿음상(간증) - 전체 1등}

네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Part 2)

박현숙 사모 (가나연합감리교회, VA)

나는 위태로운 사역지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앞에 COVID-19이라는 괴물이 찾아왔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였다. 죽기 전에 마지막 봉사를 결심했다. 뱀이 나올 정도로 자라버린 1.5에이커의 교회 잔디밭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털썩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남편은 팔을 끌어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홈리스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봄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나는 자고 나면 한 뼘씩 자라있는 잔디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구름이 무등을 태워 대신 일해 주었다. 나는 구름 위를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무엇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았다. 교회문은 닫았으나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충성스러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직장암이라고 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데다가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남편은 곧장 기도원으로 향했고 금식을 시작했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식을 했다. 누군가를 살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밥해줄

사람이 없는 그녀를 위해 나는 한 달 동안 밥을 지어 날랐다. 식은땀이 겹줄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알 턱이 없었다.

이웃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특별히 ㅅ교회 K목사님은 내 상황이 긴박할 때마다 그랬다. 다 알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처음이 아니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되었다. 내 앞에 지나가는 배고픈 이들에게 무수히 밥을 먹였더니,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셨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걱정 없이 아플 수 있었다. 이슬도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지나가던 조경회사 차가 8톤의 멀치를 공짜로 교회에 부려놓았다. 교회보다 큰 산이 넷이 생겼다. 우리는 새벽부터 땅거미 질 때까지 삽질을 했다. 높고 단단한 산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허물어지고 마침내 산은 옮겨져 있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였다. 그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믿음을 드렸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동산은 풍성해지고 열매들은 코로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라났다. 삽질은 살이 빠져 헐렁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운동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교류가 없던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 중, 가나교회가 계속 떠올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을 보내드려요." 비가 새던 교회 지붕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딱 그만큼이 필요했었다. 여름장 마에도 걱정 없게 되었다. 세상은 코로나가 밀물처럼 덮어 버렸으나, 교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천에 과일이 익어가고 채소들이 자라났다. 교회 동산에 물을 주는 일이 낙이었던 불쌍한 교우 한 분이 돌아가셨다. 또 장례가 났다.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고급진 도시락을 만들어 할아버지 배낭에 넣어드리고 영원한 나라로 소풍을 보내드렸다.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쁘셨다.

교회 공터에 놀이터를 짓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

누가 온다고 놀이터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름 땡볕에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모래와 멀치를 덮었다. 빨간 지붕이 올라가던 날, 남편은 '드림랜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이들이라야 고작 셋이었다. 한 가정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 입국도 어렵던 시기였는데 일사천리로 이민 수속을 밟았다고 했다. 아이들 둘이 늘어 다섯이 되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놀이터에서는 해 넘어갈 때까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즈음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교회 아름드리나무들이 옆 건물로 넘어져 진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곱 그루를 베어내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일군들을 돕다가 가장 큰 나무 밑동에 팔이 깔리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지게차가 와서 그의 팔을 꺼냈다. 팔은 멀쩡했다. 옆 건물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옆 건물은 '베트남 불교 미주본부'이다. 그날, 나는 잔디를 밀다가 언덕배기에서 몇 바퀴 굴렀다. 위험천만했다. 기계는 굉음을 내며 불꽃이 튀었다. '쾅 쾅!!' 나는 풀떼기들을 떼어내며 사뿐히 일어났다. 옆 건물 스님들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조용히 드러내셨다.

남편은 '전교인 50일 작정기도'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미국과 세상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주셨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다. 마침, 버지니아 주지사는 앞으로 3주 뒤부터 50명까지의 집합을 허용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날은 우리교회 '오십일 작정기도' 가 끝나는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 볼 수 있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약물치료에 들어갔다.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호르몬 문제, 갑상선 등 온전한 데가 없었다.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센서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빨간불이 켜지고 뚝뚝 떨어

지던 저혈당도 제 자리를 찾아갔다. 치료는 속했다. 회색으로 보이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땅 위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편과 나란히 걷는 날이 많아졌다. 각자 살아내느라 서로 늙어 버린 것도 몰랐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려서부터 폐 기능이 좋지 않았다. 앉아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가파른 사역의 길을 지친 몸으로 달렸으니 쓰러질만했다. 서너 걸음도 뗄 수 없었던 내가 언덕을 오르고 두 시간을 쉬지 않고 걷는다. 기적이다. 나는 이제 걷고 폴짝거리며 뛴다. 내리 달릴 수 있다. 폐 기능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다.

일 년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지켜보고 계셨다. 긴박하게 써 내려갔던 유언장을 펴 보았다. 고통과 고난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정지'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었다. 나는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애 많이 썼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고생 많았어, 잘 견뎌 내었다, 수고했어."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 있는 풀 한 포기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물며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묶어 놓았던 현실과 코로나도 나를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내가 서 있던 벼랑 끝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치유의 자리,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였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예레미야 29:11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코로나는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었다. 잔디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다시 시작이다. 4월이다.

{수필분야 - 소망상(1등)}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 욥기의 새로운 이해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지난 12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지난 6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본문은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가짐으로 욥기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 고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욥기에 대한 나의 이해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회복 및 축복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과 그의 세 친구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 했던 욥의 신앙을 저의 본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므로 잘 이겨내면 더 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묵묵히 견뎌보려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

용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6월의 욥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욥기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전제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둘째는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1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는 말씀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8, 2:3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욥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욥의 의로움을 '세상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욥만큼 의로운 자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욥기 42:5,6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그의 잘못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지만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며 바벨탑처럼 쌓여가는 자신의 의를

지키려는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으며, 욥은 이를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들 -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대신해서 빠짐없이 번제를 드림(1:5),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김(23:12), 이웃에게 베푸는 일(24장), 지나친 금욕(31:1,2)과 구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는 일(27:4,5,6).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가 정금같이 빛나지기를 바라는(23:10) 기대(소망, 믿음).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욥의 열심과 기대를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지나온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욥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멘토처럼 되었으며 그러한 욥을 본 받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32장 이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이 욥기 31장까지에 머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세 친구와의 변론이 끝난 후, 엘리후(32:2, 34:5,6,7)는 "나는 충분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으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인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하는 모든 행실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 하셨습니다(33:17). 모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대속물과 중보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33:24,26)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속물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욥'을 거듭 책망(40:8) 하셨습니다.

결국 욥기 42:6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한동안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

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회개해야 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의에 집착하고 자신의 의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의를 세우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 하고,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즉 스스로를 흙과 같이, 티끌과 재와같이 여기면서 회개하나이다(곧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주체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욥기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한 후 다시 읽고 묵상하였을 때, 욥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셔서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없이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가운데 빛나는 신약이었으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욥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6월, 욥기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지만, 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지불한 대가를 나의 의로 여기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나를 율법 아래 매이게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 성취될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나의 신앙의 자세도 어쩌다가 생겨난 바이러스에 대해 내가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갈수록 '나의 의를 세우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욥기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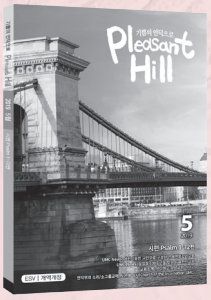
Memo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4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40** per month
15권	매월	**$ 60** per month
20권	매월	**$ 80** per month
25권	매월	**$ 100** per month
50권	매월	**$ 200** per month
100권	매월	**$ 40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스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벧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드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Memo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이광훈 목사 (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주일 칼럼**
  송종남 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이승우 목사(워싱톤연합감리교회, MD)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Kore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